water
LeveL-fighting
침수에 대항하는 건축의 도전

지구 온난화에따른 기후 변화로 침수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홍수로 인한 수면 변화폭이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침수지역 놓인 건축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만도 역시 2100년 까지 해수 이 해 기가온 전역이 침수될 것이라는 최신스터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제 건축에서 '물'은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수용해야 할 요소가 되고 있다. 놀라워는 수면 개발을 주도하려고 이들 지면지역 활용하려는 건축가들이 창의력이 고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예부터 홀랜드(polder)라는 인공 대지를 개발함으로써 물을 극복한 네덜란드와 홍수 재난에 가장 큰피가 잘렸 나라로 꼽히는 영국에 각각 근거를 두고있는 워터스튜디오와 NGM 사의 물 계획 주력 한줄 소개한다. 또한 영국 최대의 경영보험사인 노르위치 유니온과 영국왕립건축가협회가 개최한 2008 홍수주택디자인공모전의 당선작을 통해 수면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를 살펴본다. 이들은 물위 떠다 오르내기보다 개발지역 가운 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그 공간이나 보수 관리, 수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즉 기존 도시보다 훨씬 더 예측적인 장소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변화에 맞게